

유아인, 4000만원 상당의 전시회 입장권 기부
 배우 유아인이 4000만원 상당의 전시회 입장권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했다. 23일부터 서울역사의 '문화역서울 284'에서 열리는 '다빈치 코덱스' 전시회 홍보대사인 그는 "소외계층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기부 배경을 밝혔다.



최민호 “행복한 기억 지우며 진일에게 다가갔죠”



그를 사이나 민호는 영화 '두 남자'에서 '배우 최민호'로 나선다. 모범생 이미지이지만 영화에서는 가솔 청소년 캐릭터로 열연을 펼쳤다. 사진제공 | 엠씨엠씨

영화 '두 남자'로 스크린 첫 주연

사이나 데뷔 전부터 꿈꿔 온 연기자의 길 1000만 영화 선배 배우들과 연기하고 싶어

영화 '두 남자'의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최민호(25)는 몇 가지 의문을 가졌다. 경험하지도, 상상해본 적도 없는 낯선 인물의 삶을 연기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왜 그 역할을 자신에게 제안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였다.

“제작진이 나를 잘 모르나, 왜 나한테 줬을까, 사이나 활동 모습을 못 봤나. 별 생각이 들었다.”

의아함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최민호는 '두 남자'(감독 이성태·제작 엠씨엠씨)에 출연했다. 완성된 영화는 11월30일 개봉해 관객과 만나고 있다. 최민호는 그렇게 스크린에서 첫 주연 신고식을 마쳤다. “영화를 정말 하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작용했다.

“시나리오를 많이 받는 입장이 아니다. 오디션도 찾아다녀야 하고, '두 남자'는 그런 나를 먼저 찾아왔다. 처음엔 놀랐지만 지금 내 나이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생각해 마음을 굳혔다.”

5인조 그룹 사이나의 멤버인 최민호는 남부럽지 않은 인기를 얻는 아이돌 스타다. 무대 위가 익숙하지만 사실 데뷔 전부터 연기를 꿈꿔왔다. 욕심을 앞세울 수 없었던 것은 “무대에서 먼저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최민호에게 새로운 출발이 될 '두 남자'는 거리에서 살아가는 가솔 청소년, 이들을 돌보아주는 어른의 대립을 그린다. 최민호는 가솔 청소년 집단의 리더 진일 역할. 자신의 여자친구를 붙잡아 가둔 노래방 악덕 업주(마동석)에 맞선다.

주인공 진일과 실제 최민호에게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외적인 이미지는 물론 처한 상황, 지

금까지 살고 그렇다. 최민호는 자신의 학창시절을 “따뜻했다”고 소개했다.

“다행히 부모님 밑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자랐다. 고등학교 때 데뷔하고 지금껏 평탄하게 지냈다. 그래서 처음엔 진일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내가 가진 행복한 기억을 하나씩 지우면서 진일의 마음에 다가가려 했다.”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이라면 한 번쯤 가졌을 법한 '가솔 충동' 역시 그에겐 예외였다.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고 한다. 다만 두 살 터울인 형과 즐겼던 비교되는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공부도 운동도 잘 하고, 잘 생긴 얼굴에 인기까지 많은 형 때문에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비교당했다”는 그는 “요즘엔 내가 더 잘 생겼다”며 웃었다.

거친 세상에 내던져진 10대가 어떻게 상처받는지 그런 영화를 통해 최민호는 “책임감이 생겼다”고 했다.

“어려운 청소년에게 누군가 꿈이 뭐냐고 묻는다면, 도움이 손길을 내밀었다면 분명 달라진다. 아직 데뷔하지 않은 연습생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내 경험도 솔직하게 말해준다. ‘나는 더 못했어’고, 하하!”

경험을 쌓아가는 최민호는 자신을 “완벽주의자”로 소개한다. 특히 연기를 향한 욕심과 의욕은 누구와 겨뤄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듯하다. “1000만 영화에 나온 모든 선배 배우들과 연기하고 싶다”는 말도 꺼냈다.

25살의 나이, 사실 연예인이 아니라면 일보다 친구들, 연애에 더 관심이 많을 때다. ‘데이트는 언제 하느냐’고 물었더니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다”며 입을 열었다.

“예전에 연애할 때 ‘안 한다’고 말한 적은 있다. (웃음) 지금은 안 한다. 사랑의 감정이 정말 필요하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라야 연애를 시작할 것 같다. 바쁜 스케줄을 뚫고 달려가서 만나야 하는데, 그럴 상대가 지금은 없으니까.”

이해리 기자 gah1024@donga.com



김원겸의 토크쇼

빛이 된 무리한 기부 약속 김장훈의 거짓기부 논란

재미언론 선데이저널은 최근호를 통해 가수 김장훈이 2014년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연 출연료 2억 원을 비롯해 2013년 미국 투어 당시 수전G코먼 유방암재단, UCLA 한국음악과 살리키운동본부, NY U 한인학생회 등에 약속한 총 16만 달러 기부가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수전G코먼 측에는 약정액 중 일부만 전달됐고, 나머지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김장훈을 '기부천사'로 알린 이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

김장훈을 잘 아는 가요계 인사들은 이 같은 상황을 일찌감치 예견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온 것이 사실이다. 그의 무리한 기부 약속이 언젠가 '부도'를 낼 수 있다는 시선이었다.

김장훈의 기부 방식은 독특하다. 수중에 있는 돈을 기탁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내겠다'고 약속부터 해놓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거나 '행사'를 띄워 마련한다.

문제는 기부 약속을 여러 곳에, 그것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수익으로 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기부'라는 이름의 빛인 셈이다. 행사와 공연이 호황일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지나면서 추모 분위기 속에서 무대가 크게 줄었다. 행사에 의존하던 김장훈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그는 병적인 정도로 '기부'에 집착했고, 지기가 어려운 약속도 하나둘 늘려갔다. 김장훈은 '언젠가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이겠지만, 도움을 기대했던 측 입장에서는 결국 헛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김장훈은 5일 '최순실·차은택 해명 관련 거짓기부'를 둘러싸고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칼럼에 게재된 의혹과 논란에 입장을 표명했다. 거짓기부 논란에 대해 "제가 오롯이 혼자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제 개인의 양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해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그런 자라시 따위가 왜곡시킨다 해도, 상식과 시간을 믿고 그냥 내 갈 길만 가겠다"고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부물 '체납' 중인 그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영위하려면 적어도 이제 '관리'는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해온 의로운 일들마저 퇴색되지 않게 하려면 말이다.

엔터테인먼트부 기자 gymmy@donga.com

아이유 콘서트는 '사랑의 오작교'

'불화설' 최자·설리 공연장 찾아 환호 3년째 교제 중인 장기기도 연인 응원

사랑이 '꽃'을 피운 현상이었다. 불화설에 휩싸였던 최자와 설리는 정답게 공연장을 찾았고, 장기기도는 3년째 교제 중인 여자친구의 공연을 지켜봤다. 3500여 관객의 환호로 뜨거웠던 4일 아이유 콘서트에서다.

이날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아이유 콘서트 '스물네 걸음: 하나 둘 셋 넷' 둘째 날 공연에서 최자·설리 커플이 공연을 즐겼다. 최근 설리가 손목 부상으로 새벽 응급실을 찾은 것을 두고 불화설 등 구설에 올라 두 사람의 이날 공연 관람

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설리는 이날 공연장에서 최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장기도도 이날 객석에서 아이유의 공연을 지켜봤다. 두 사람은 작년 "2년째 교제 중"이라고 밝히면서 화제를 모았다. 장기기도는 작년 아이유 연말 콘서트에도 나타나 눈길을 모았다. 장기기도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일행과 함께 공연장을 찾아 객석의 열기를 나눴다.

이 밖에 박지영·서현·강한나·지해라 등 SBS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에서 아이유와 함께 했던 연기자들도 관객과 환호하며 아이유를 응원했다.

아이유는 올해 가수 활동이 없었다. 이번 공연이 올해 가수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



4일 열린 아이유 콘서트 현장에서 최자·설리 커플이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아이유와 3년째 교제중인 장기기도도 이날 공연장을 찾았다. 사진제공 | 에이브엔터테인먼트

활동이어서 입장권은 일찌감치 매진됐다. 그는 공연에서 "작년엔 슬럼프였다"고 고백하며 "현재 음반 작업 중이고, 내년엔 새 음반을 내고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들간 약 7000명을 동원하며 공연을 마친 아이유는 16일 홍콩, 새달엔 대만에서 콘서트를 펼친다.

김원겸 기자 gymmy@donga.com

권진원 '그대와 꽃피운다' 음원·악보 무료 공개

김광민·평화의 나무 합창단 참여 눈길 "내 노래가 작은 촛불 하나가 되길 희망"

이번엔 권진원이다.

이승환·안치환·박상민에 이어 권진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분노와 허탈감에 빠진 국민들을 위해 7일 '그대와 꽃피운다'를 발표, '촛불'의 노래를 이어간다.

앞서 11월11일 이승환이 싱어송라이터 이규호와 함께 '길가에 버려지다'를 '국민위로곡'으로 내놓은 후 안치환이 권력의 두 얼굴을 날카롭게 꼬집는 싱글 '권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11월17일 선보였다. 박상민도 11월28일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며 '눈물뿜'을 내놨다.

권진원은 '그대와 꽃피운다'의 슬로 버전과 대규모 합창 버전으로 나눠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동시에 누구나 함께 따라 부를 수 있



권진원

도록 인터넷 사이트 '그대와 꽃피운다.kr'을 개설해 음원과 악보를 별도로 무료 공개한다. 슬로 버전에는 피아니스트 김광민, 합창버전에는 '평화의 나무 합창단'이 참여했다.

'그대와 꽃피운다'는 상처 입은 시대에 띄우는 희망의 노래다. 권진원은 5일 소속사 JHN뮤직을 통해 "처음엔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려 만든 '나의 노래'였는데, 함께 부르는 '우리의 노래' 함창으로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자신의 노래가 "광장을 밝히는 작은 촛불 하나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장의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분노를 보면서 이 옷들을 신뢰하게 됐다. 저들과 함께라면 우린 달라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면서 "노래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날을 여러분들과 함께 꽃피우겠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mmy@donga.com

서인국, '군입대 전 마지막 콘서트' 연다

31일 콘서트 '민트 초콜릿' 입대 앞두고 팬들과의 만남

'마지막 콘서트'

가수 겸 연기자 서인국이 31일 콘서트 '민트 초콜릿'을 열고 팬들과 함께 한 해를 정리한다. 이날 밤 10시 서울 광장동 악스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무대는 서인국에게 여러 모로 뜻 깊은 공연이다. 올해 두 가지 영역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한 덕분에 기대 이상의 성적표를 받아든 서인국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시선이 쏠린다.

특히 1~2년에 한 번씩 진행해오던 그동안 콘서트와 달리 내년 초 입대하기 전 여는 '마지막 콘서트'라 의미도 남다르다. 서인국은 지난 달 중순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이 연 '아시아 드라마 콘퍼런스'에서 특별 표창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존재감을 과시한 만



서인국

큼 이번 콘서트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기세다.

이에 9일 팬들에게 먼저 제공되는 예매 시간에 국내와 일본 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종 SNS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서인국의 콘서트 입장권 구매와 관련한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서인국은 기존의 히트곡과 다양한 에피소드 등을 추가해 공연을 가득 채울 예정이다. 또 5일 현재 입대 영장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입대일은 물론 콘서트를 제외한 공식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입대 전까지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아쉬움을 달래겠다는 각오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구글플레이 게임 매출 랭킹

순위	게임명	서비스사
1	모두의 마블 for kakao	Netmarble Games
2	세븐나이츠 for Kakao	Netmarble Games
3	데스티니 차일드 for Kakao	Next Floor Corp.
4	레이븐 with NAVER	Netmarble Games
5	히트	NEXON Company
6	아벤	ITSGAMES
7	뮤오리진	Webzen Inc.
8	피망 포커: 카지노 로얄	NEOWIZ GAMES
9	프렌즈팝콘 for Kakao	Kakao Corp.
10	별이 되어라! for Kakao	GAMEVIL

12월 5일 기준